

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10.12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□ 국내

○ "1014km 주행거리, 택시 장벽 뚫었다"...넥쏘, 日 승용 수소차 점유율 11% ('26.10.8, 매일경제)

- 현대차 '디 올 뉴 넥쏘'는 일본 출시 후 4~8월 20대가 등록됐으며, 인도 예정 물량을 포함한 판매 규모는 35대에 달함
- 이 중 22대가 도쿄·아이치 지역 택시 사업자에 공급됐거나 공급 예정으로, 일본 택시 시장에서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있음
- 넥쏘는 일본 WLTC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1,014km를 확보했으며, 연료전지 출력과 내구성 개선 및 실내·적재 공간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함
-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수소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·연료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, 현대차도 현지 택시업체와 연계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

○ 포스코, 철강 분야 녹색대전환 추진...포항·광양서 '철강 GX' 클러스터 구축 ('26.10.7, 이데일리)

- 포스코그룹은 정부의 '한국형 녹색대전환(K-GX)' 전략에 참여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'하이렉스(HyREX)'를 중심으로 철강 탈탄소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임
- 청정에너지 공급, 저탄소 철강 시장 조성,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 '팀업(TIMUP)'을 제안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조함
- 2028년까지 포항에 연산 30만 톤 규모의 하이렉스 실증설비를 구축하고, 동남권 철강 탈탄소 클러스터 조성 후 서남권으로 확대할 계획임

- 현대로템, 이집트에 수소트램 첫 수출 추진 ('26.10.8, 조선비즈)
 - 현대로템이 이집트 터널청과 신행정수도 수소전기트램 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함
 - 약 28km 노선에 수소전기트램 44편성 도입을 검토 중이며,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임
 - 사업 성사 시 현대로템의 첫 수소전기트램 수출 사례로, 수소 생산·충전 인프라 구축도 기대됨
- 현대엔지니어링, 하이브리드 수전해 기술 개발…글로벌 수소 시장 공략 ('26.10.8, 헤럴드경제)
 - 현대엔지니어링이 재생에너지 변동에 대응하는 하이브리드 수전해 시스템 기술 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함
 - ALK와 PEM 수전해 방식을 결합해 풍력 발전량 변동에 대응하고, 수소 생산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일 계획임
 - 현대엔지니어링은 플랜트 설계와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며, 실증을 통해 국내외 수소 생산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임
- 김재홍 회장, 한국 수소산업 현황 및 한·미 협력방안 제시 ('26.10.7, 투데이에너지)
 - 한국수소연합 김재홍 회장은 10월 6~7일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'Hydrogen Americas Summit & Exhibition 2026'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함
 - 김 회장은 한국의 수소경제 제도적 기반 구축 과정과 수소모빌리티·발전용 연료전지 상용화 성과를 소개하고, 청정수소 시장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·예측 가능성을 강조함
 - 특히 한-미 양국의 협력을 철강 등 난감축 산업의 수소전환 분야로 확대하고, 청록수소 기술개발·표준화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것을 제안함

□ 해외

- [독일] 독일, EU 재생에너지지침 수소 의무목표 완화 필요성 제기 ('26.10.7, Hydrogen Insight)
 -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(BMWE)는 EU 재생에너지지침(RED III)의 일부 수소 목표가 기한 내 효과적인 이행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함
 - 특히 산업부문에서 '30년까지 재생수소 사용 비중을 42% 이상으로 설정한 의무목표가 회원국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함
 - BMWE는 국가별 세부 의무목표 대신 RFNBO에 대한 EU 차원의 통합 목표를 설정해 회원국과 산업계가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
 - EU 집행위원회는 RED IV에서 기존 국가별 의무목표를 직접 보조금과 거래 가능한 인증서 등을 활용한 EU 차원의 유연한 목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
 - 독일은 이러한 제도 개편이 수소 수요 확대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해 수소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
 - 반면 플러그파워·에어프로덕츠·에어리퀴드·발라드 등 170개 기업은 기존 RFNBO 의무목표 유지를 촉구하며, 해당 목표가 유럽 수소사업의 투자와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해왔다고 주장함

○ [글로벌] DNV, 2060년 청정수소 생산 전망 2.1억톤으로 하향
(‘26.10.7, Hydrogen Insight)

- DNV는 '26년 에너지전환전망(Energy Transition Outlook 2026)에서 2060년 재생·저탄소 수소 생산량을 연간 2.1억톤으로 전망해 기존 2.4억톤에서 하향함
- 전체 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 시장도 2.5억톤으로 기존 2.8억톤에서 감소하고, 청정수소 비중은 90%에서 85%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
- 이번 전망 하향은 수소 경제성이나 정책지원 약화보다 전체 에너지시스템 전망 및 모델 가정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
- 부문별로는 항공·해운 800만톤, 제조업 700만톤, 발전 1,000만톤 등 총 2,500만톤 감소하며, 나머지 500만톤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
- 해운부문은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 채택 실패로 저탄소 선박연료 수요 신호가 약화되고, 해운 탈탄소화가 2~3년 지연될 것으로 전망함
- '30년 전후 전망은 기존과 유사하며, 재생수전해 수소 생산량이 약 1,000만톤 증가하고 신규 설비의 절반가량이 유럽·중국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함
- '35년 전체 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 공급량은 약 1.3억톤으로 전망하며, 청정수소 중 약 25%는 블루수소, 나머지는 수전해 기반으로 예상함
- DNV는 2060년까지 수소산업에 3.2조 달러(약 4,400조 원)의 누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